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Role of Fathers' Experienced Parent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Predicting Fathering Attitudes to Their Children*

조하영(Ha Yeong Jo)¹⁾
박성연(Seong Yeon Park)²⁾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fathers' current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experienced parenting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their parenting attitudes to their children. The subjects themselves consisted of 370 fifth-and sixth-grade children and their fathers from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Daegu. Questionnaires containing items related to experienced parenting and the current psychological well-being reported by fathers and fathers' parenting attitudes reported by their children were used.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 fathers' 'independent encouraging' attitude to their children was predicted by a fa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whereas a fathers' 'acceptance' attitudes was predicted by both a fathers' experienced 'acceptance' parenting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Further, a fa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played a moderate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experienced 'independent encouraging' parenting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their 'independent encouraging' attitude to their children.

* 본 논문은 201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과정

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명예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a Yeong Jo, Dept, of Child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Cheonggu Seongjo Town, Beomeo 3-dong, Suseong-gu, Daegu 706-740, Korea
E-mail : jo-a-la@hanmail.net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Key words :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 독립성 조장(encouraging independence), 아버지 양육태도(fathering).

I. 서 론

수십 년간 많은 연구들에서 주 양육자로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아버지는 보조자 역할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는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Cho & Choi, 2002), 현대사회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더 이상 어머니의 보조역할로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점차 늘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이나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Whiteside-Mansell, Bradley, & McKelvey, 2008), 아버지로부터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을 받은 자녀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서로 협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Yang, 2011). 반면, 아동초기에 아버지로부터 거부, 방임,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경험이 많았던 자녀들은 이후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eve, Dubas, Gerris, van der Laan, & Smeenk, 2011). 이처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경험한 자녀는 이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아버지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아버지와 형성한 관계의 질은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에 영향을 주고 여러 형태의 사회적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과 더불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와 맺게 된 경험은 하나의 심상으로 자리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자녀에 대한 양육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원 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Belsky(1984)의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어렸을 때 자라온 발달사를 비롯하여 부모의 인성적 특성 및 아동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부모의 아동기 경험은 현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의 질이나 인성발달, 나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Crossfield, Alloy, Gibb, & Abramson, 2002), 부모의 양육경험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체계이론가인 Bowen(1978) 역시 부모의 양육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함으로써 양육방식의 세대 간 전이를 강조한다. 세대 간 전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아동기 때 받은 양육태도와 양육방식이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Conger, Neppl, Kim, & Scaramella, 2003; Smith, & Farrington, 2004; Thornberry, Freeman-Gallant, Lizotte, Krohn, & Smith, 2003). 예를 들어, 원 가족에서 신체적 처벌, 부정적 양육을 경험한 아버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을 보이는 경향이 높고(Belsky, Jaffee, Hsieh, & Silva, 2001; Capaldi, Pears, Patterson, & Owen, 2003; Park, 2002),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을 경험한 부모는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Belsky, Conger, & Capaldi, 2009; Chen, & Kaplan., 2001)를 보인다. 유사한 맥락으로 원 가족에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경험을 한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관계의 질을 보이며(Belsky *et al.*, 2001), 부모로부터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에게 건설적(constructive) 양육을 한다(Chen & Kaplan, 2001)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양육태도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버지가 처한 상황적 특성이나 맥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Belsky, 1984). 아버지가 처한 상황적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apaldi *et al.*, 200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자율적이고 애정적이며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부부갈등이 높은 경우는 아버지의 권위주의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Bailey, Hill, Oesterle, & Hawkins, 2009; Belsky, Jaffee, Sligo, & Woodward, 2005; Lee & Park, 2009).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부부간 갈등이 높은 아버지는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는 양육태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상황적 맥락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도 개인이 지각한 삶의 전반적 만족도인 아버지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양육과 발달에 있어서 직접적,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Palkovitz, 2002)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아버지 삶의 만족도가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Lee & Park, 2009), 아버지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이 높을 경우 아버지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아버지의 정서적 상태는 가정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Dejadins, Zelenski, & Coplan, 2008; Song, & Park, 2008),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조부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한편, 아버지가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안녕감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양육태도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볼 때, 부모가 원가족에서 강압적인 훈육 또는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을 경험했을 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기도 하며(Capaldi *et al.*, 2003), 아버지가 원가족에서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육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그러한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Belsky *et al.*, 2005)도 있어, 양육태도의 세대 간 전이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양육태도의 세대 간 전이 대신, 다른 변인에 의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원 가족에서의 양육경험이 부정적이었음지라도 현재 아버지의 일상생활이 만족스럽다면 자녀에게 긍정적 양

육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원 가족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현재 생활에 불만족 한다면 자녀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신의 원 가족에서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했을지라도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는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긍정적 양육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Belsky, 1993). 또한 원 가족에서의 경험보다 결혼 이후 부부관계가 심리적 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Ha, 2008)나 아버지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에게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인다(Noh & Song, 2007)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원 가족에서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했을지라도 현재 상황이 부정적이라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결국 아버지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삶에서의 만족감은 양육태도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변인임과 동시에 어렸을 적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현재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인 심리적 안녕감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Park, & Park, 2007), 인간행동의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의 중재적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감 보다는 아버지의 스트레스, 직장만족도, 결혼만족도 등 삶의 일부분에 초점을 두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Goodman, Crouter, Lanza, Cox, & Feagans, 2011; Lim, Moon, & Kim, 2009; Noh & Song, 2007; Schacht &

Cummings, 2009), 심리적 안녕감의 중재역할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elsky(1984)의 가족과정모델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이하 아버지의 원 가족 양육경험)뿐 아니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아버지의 원 가족 양육경험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간의 관계가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달라지는지 그 중재적 영향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버지의 원 가족 양육경험 및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대구시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남아 165명, 여아 205명)과 그들의 아버지 370쌍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연령은 10.59세($SD = 0.64$)이며, 연구대상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3.02세($SD = 4.4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가족의 월소득 수준은 200~400만원이 58.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3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가정은 교육수준, 월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통계청, 2010) 중산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녀가 보고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지와 아버지가 보고한 아버지의 원 가족 양육경험 및 아버지가 현재 느끼고 있는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질문지이다.

1) 아버지의 원 가족 양육경험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Epstein(1983)의 부모-또래 척도(Mother-Father-Peer Scale; MFPS)를 Jeon(1999)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또래 척도(MFPS)는 총 70문항으로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 수용 대 거부 차원, 부모이상화 차원, 또래상호작용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경험만을 측정하고자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과 수용 대 거부 차원만 사용하였다.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은 원래 13문항, 수용 대 거부차원은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들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를 낮추는 2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은 11문항, 수용 대 거부 차원은 8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은 아동기 때 부모가 독립심, 자아-회복력, 사회적 발달 등을 조장시켰는지, 반대로 지나치게 과보호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문항 예로는 “어떤 일을 할 때,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했다”등을 들

수 있다. ‘수용 대 거부 차원’은 부모가 아동을 애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반대로 아동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문항 예로는 “내가 아버지 근처에 있는 것을 귀찮아 하셨다”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그랬었다”(5점)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로,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과 ‘수용 대 거부 차원’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독립성을 조장하는 양육경험을 했거나 수용적 양육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차원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2$ 이고, 아버지의 수용 대 거부차원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현재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아버지의 원 가족 양육경험을 측정하는 척도(MFPS)와 같은 척도를 시제만 바꾸어 사용하였으며(예: “어떤 일을 할 때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했다” ⇒ “우리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해준다”로 수정), 아동이 직접 자기 아버지 양육태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로,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에게 수용적 태도 또는 독립성을 조장하는 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차원(11개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1)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중산층 기준은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 중 월 평균가처분 소득 151만~453만원인 가구로, 조세와 3대 연금 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평균 26.5%임을 반영하면, 세전 수입으로 월 205~818만원인 가구.

Cronbach's $\alpha = .66$ 이고, 수용 대 거부차원(8개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1$ 로 나타났다.

3)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척도는 Ryff와 Keyes(1995)가 제작한 PWB(The 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를 Park(2007)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WB는 자신의 삶에 대해 정서적으로 느끼고 인지하는 복지감 정도를 말하며, 자율감,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삶의 목적, 자기 수용으로 구성된 6개 요인으로 각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율감’은 삶에 대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 예로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한다”등을 들 수 있다. ‘환경통제력’은 주변 환경과 삶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하며 문항 예로는 “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을 꽤 잘 수행해 나간다”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적 성장’은 한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의미하며 문항 예로는 “나에게 삶은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등을 들 수 있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질에 관한 것으로, 문항 예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이나 신뢰감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등을 들 수 있다. ‘삶의 목적’은 삶의 비전과 목적, 실행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 예로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등을 들 수 있다. ‘자기 수용도’는 자신의 과거 삶과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 예로는 “나는 내 성격 대부분을 좋아 한다”등을 들 수 있다.

PWB는 연구자에 따라 총점 또는 하위요인으로 분석되나,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8$ 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조사는 연구자가 2012년 2월 중에 서울과 대구에 위치한 3개의 초등학교 5, 6학년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의 학교장 동의하에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 배부 시, 각 반 담임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담임교사들이 당일 즉시 회수하였으며, 아버지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아버지께 전달하게 하였다. 배부된 총 400부의 질문지 중 385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된 1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70부를 본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척도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는 한편,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 및 Pearson 상관관계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연구문제 분석에서 모든 통계적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아래에서는 우선 기초분석으로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제시한 후,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아버지의 원가족 양육 경험, 심리적 안녕감,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한편, 연구변인들 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한 모든 연구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1에서 보듯이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버지의 연령은 아버지가 경험한 독립성조장 양육과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r = -.127, p < .05$),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원 가족에서 독립성을 조장하는 양육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r = .149, p < .01$) 및 자녀에 대한 수용적 양육태도($r = .113, p < .05$)와 정적상관을 보여,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자녀에 대해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가정의 수입정도는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r = .227, p < .001$) 및 자녀에 대한 독립성 조장 양육태도($r = .133, p < .05$)와 정적 상관을 보여, 수입이 많

<Table 1> Pearson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 = 370$)

	1	2	3	4	5	6	7	8
1. Age of father	-							
2. Education of father	.069	-						
3. Income	.089	.282***	-					
4. Fs' experienced independent encouraging vs overprotectiveness	-.127*	.002	-.001	-				
5. Fs' experienced acceptance vs rejection	-.034	.005	.071	.501***	-			
6. Fs' psychological well being	-.006	.149**	.227***	.190***	.180***	-		
7. Fs' independent encouraging vs overprotectiveness to their children	-.091	.083	.133*	.087	.049	.179**	-	
8. Fs' acceptance vs rejection to their children	-.100	.113*	.054	.094	.178**	.239***	.426***	-
<i>M</i>	43.02	3.22	4.01	3.45	3.48	3.52	3.62	4.05
<i>SD</i>	3.409	1.031	1.367	0.51	0.63	0.39	0.46	0.61

* $p < .05$. ** $p < .01$. *** $p < .001$.

Note. Education of father(1=Middle school or less, 2=High school, 3=College, 4=University, 5=Graduate school or higher); Income(1=less than 1 million won, 2=1~2 million won, 3=2~3 million won, 4=3~4 million won, 5=4~5 million won, 6=5~6 million won, 7=more than 6 million won)

을수록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자녀에게 독립성을 조장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였다.

한편, 아버지의 원 가족에서 경험한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독립성조장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는 상관이 없었으나,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수용적 양육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r = .178, p < .01$), 수용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버지는 자녀에게 보다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한편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독립성조장 양육태도($r = .179, p < .01$) 및 수용적인 양육태도($r = .239, p < .001$)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외에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독립성조장 양육태도는 수용적 양육태도($r = .426, p < .001$)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2.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버지의 원가족 양육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의 독립적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위의 상관관계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의 원 가족 양육경험 및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중재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양육태도와 수용 대 거부 양육태도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수행시 1단계에서는 상관관계분석에서 연구변인들과 상관을 보였던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월 평균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첫 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한편, 연구문제인 현재의 양육태도나 행동의 예측변인으로 원 가족에서 경험한 양육태도가 중요하고(Conger *et al.*, 2003; Smith *et*

al., 2004), 이는 시간적으로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에 선행되는 변인이기에 2단계에서는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순으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원 가족에서 경험한 양육태도와 아버지 심리적 안녕감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원 가족 양육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 값이 .802~.971로 .1이상이며, 분산팽창요인 값이 1.029~1.247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아버지가 경험한 독립성조장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독립성조장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독립성조장 양육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Table 2에서 보듯이 모델 1에서 통제변인인 아버지의 연령($\beta = -.109, p < .05$)과 수입($\beta = -.119, p < .05$)은 자녀에 대한 독립성조장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원 가족에서 경험한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모델 2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beta = .148, p < .01$) 만이 자녀에 대한 독립성조장 양육태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독립성조장 양육태도를 보였다($F(5,364) = 4.068, p < .001; Adj R^2 =$

<Table 2> The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fathers' experienced parent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fathers' independent encouraging vs overprotectiveness to their children ($N =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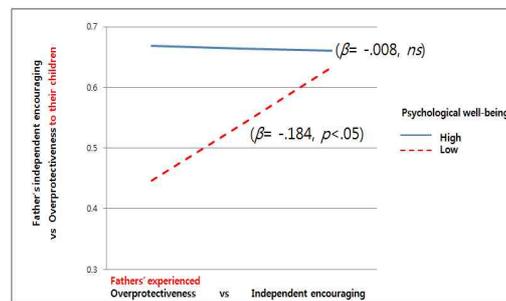
Variable	Independent encouraging vs overprotectiveness		
	Model 1 (β)	Model 2 (β)	Model 3 (β)
Age of father	-.109*	-.099	-.089
Education of father	-.047	-.047	-.037
Income	-.119*	-.088	-.088
Fathers' experienced			
Independent encouraging (A)		.051	.098
Psychological well-being (B)		.148**	.136*
(A)×(B)			-2.108*
$F(df)$	3.308* (3,366)	4.068*** (5,364)	4.162*** (6,363)
R^2 (Adjusted R^2)	.026(.018)	.053(.040)	.064(.049)
ΔR^2	.026	.027	.011

* $p < .05$. ** $p < .01$. *** $p < .001$.

.040]. 한편, 아버지가 원 가족에서 경험한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양육태도와 아버지 심리적 안녕감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델 3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의 독립적 영향력($\beta = .136, p < .05$)과 함께 두변인의 상호작용 효과($\beta = -2.108, p < .05$)가 나타났다($F(6,363) = 4.162, p < .001; Adj R^2 = .049$].

상호작용 효과를 사후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점수를 중심화(centering)하여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상, 하)집단으로 나눈 후, 집단의 회귀식 기울기에 대해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경우는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beta = -.008, ns$),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경우의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84, p = .05$). 즉 Figure 1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경우,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독립성조장 태도이든

혹은 과보호적 태도이든 상관없이, 자녀에게 독립성을 조장하는 양육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랄 때 독립적 양육을 많이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를 보여, 아버지가 자랄 때 독립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버지일수록 자녀에게 독립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아버지가 자랄 때 과보호적 양육을 경험한 아버지일수록 자녀에게 독립성조장 양육태도를 덜 보였다.



<Figure 1> Interaction effect of fathers' experienced parent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fathers' parenting to their children

2) 아버지가 경험한 수용적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수용 대 거부 양육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에서 보듯이 모델 1에서는 아버지의 연령($\beta = -.120, p < .05$)만이 자녀에 대한 수용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모델 1의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인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수용 대 거부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연령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한편,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beta = .141, p < .01$)와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beta = .205, p < .001$) 모두 자녀의 수용적 양육태도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F(5,364) = 13.988, p < .001; Adj R^2 = .081$]. 즉, 아버지가 수용적 양육태도를 경험했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

을수록 아버지는 자녀에게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수용적 양육경험과 아버지 심리적 안녕감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모델 3은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아버지의 원 가족 양육경험과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한편, 아버지의 양육경험이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그대로 전이되는지 또는 이러한 관계가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중재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370명의 자녀와 그들의 아버지이다.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질문지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지는 아동의 지각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아동으로부터 자료를

<Table 3> The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fathers' experienced parent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fathers' acceptance vs rejection to their children ($N = 370$)

Variable	Acceptance versus rejection		
	Model 1 (β)	Model 2 (β)	Model 3 (β)
Age of father	-.120*	-.110*	-.111
Education of father	-.086	-.089	-.089
Income	-.069	-.018	-.020
Fathers' experienced			
Acceptance vs rejection(A)		.141**	.150**
Psychological well-being(B)		.205***	.198***
(A)×(B)			-.034
<i>F(df)</i>	2.995*(3,366)	13.988***(5,364)	.420(6,363)
<i>R²(Adjusted R²)</i>	.024(.016)	.094(.081)	.095(.080)
ΔR^2	.024	.070	.001

* $p < .05$. ** $p < .01$. *** $p < .001$.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버지가 원가족에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했을수록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경험한 독립성조장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독립성조장 태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에 대한 독립성조장 태도나 수용적 태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우선,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독립성조장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현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독립성조장 양육태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 및 상호작용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독립성조장 양육태도는 현재 자녀에 대한 독립성조장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독립성조장의 양육을 경험했을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온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불일치한다(Jeon & Park, 1999). 이처럼 불일치한 연구결과는 원 가족에서 받은 양육경험에서 주된 역할을 한 부모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다른데 기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조부에게 받은 양육경험이 아버지의 현재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반면, Jeon & Park의 연구에서는 조모에게 받은 양육경험이 아버지의 현재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은 아버지의 강압적인 양육태도가 할 아버지의 강압적인 양육태도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Park(2002)의 연구로도 뒷받침된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전 세대의 부모

보다 요즈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Lee, Koh, & Shim, 2009; Chun & Kang, 2007; Greene, 1994; 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에 비추어 볼 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들이 과거의 양육경험과 상관없이 자녀의 개성과 자율적인 행동을 더 지지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아버지의 독립성조장 양육경험이 직접적으로 자녀에 대한 독립성조장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이나 아버지의 연령 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그 영향력이 약화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보아 후속연구를 통해 재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에 대한 독립성조장 양육태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현재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독립성조장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므로 직접적인 논의는 어렵지만,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일컫는 것으로 이에 포함된 개념인 부부만족도나 스트레스 등을 다룬 연구나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초점을 둔 연구에 비추어 논의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Capaldi *et al.*, 2003),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낮게 수행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난(Kim & Kim, 2011)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아버지의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Lee & Park, 2009)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어머니

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더 높게 나타난 결과(Desjardins *et al.*, 2008)와 유사하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촉진시키는 양육태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독립성조장 양육태도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은 중재효과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경우,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과잉보호 양육이나 독립성조장 양육태도에 상관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독립성조장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경우에는 원 가족에서 독립성조장 양육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즉 과잉보호 양육을 경험했을 때)는 특히 자녀에게 독립성조장 양육태도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중재효과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원 가족에서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했다라도 배우자나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경험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부정적 양육경험이 그대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결과(Belsky, 1993; Egeland, Jacobvitz, & Papatola, 1987)를 뒷받침한다.

한편,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현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 및 상호작용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는 현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랄 때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했을수록 자녀에게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가 아동기 때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며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낮게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Lee, Song, & Doh, 2011; Belsky *et al.*, 2001)를 지지한다.

둘째, 아버지의 현재 심리적 안녕감 또한 독립적으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으면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온정적,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며(Belsky & Isabella, 1985),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거나 결혼만족도가 낮은 아버지는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낮고,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는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Jeon & Park, 1999; Schacht & Cummings, 2009)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비지지적인 직장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더 강압적이고 부정적이며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대화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Goodman *et al.*, 2011)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자녀에게 독립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현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중재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수용적 양육태도가 현재 자녀에 대한 수용적 양육태도로 전이가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중재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Belsky *et al.*, 2005). 자녀에 대한 수용 대 거부 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원 가족에서 경험한 양육태도가 직접적

인 영향을 주어 세대 간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자라온 가정에서의 수용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어렸을 적 양육 받은 경험이나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녀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는 이 두 요인이 각기 독립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독립성조장 양육태도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의 중재 효과가 나타나 아버지가 경험한 원 가족에서의 양육태도보다 아버지가 느끼는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이 더욱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그 내용에 따라 아버지가 경험한 원 가족 양육태도와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측정방법의 문제이다.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양육태도 질문지는 어렸을 적 자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양육경험을 회상하여 측정하였다. 회고식에 대한 한계점은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한 비중은 적고, 판단이나 해석에 의존한 경험을 보고하기도 하며(Hardt & Rutter, 2004), 현재 정서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어렸을 때 받았던 양육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시대적 변화 및 저 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며(Chun & Kang, 2007), 아버지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Kang, 2000; Chae, 2011)에 근거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을 구분하여 본 연구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부모자녀관계 연구들에서는 관련 변인들의 독립적, 누적적 영향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Park, Park, & Han, 2009). 그러나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신이 어렸을 적 경험한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중재역할을 하는 지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양육태도의 세대 간 전이 연구는 대부분 거부, 강압, 체벌 등 부정적 양육에 관심을 두었지만(Belsky *et al*, 2001; Capaldi *et al*, 2003; Simons *et al*, 1993; Smith, & Farrington, 2004), 최근에는 국외를 중심으로 원 가족에서 경험한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대로 전이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Chen & Kaplan, 2001; Thornberry *et al*, 2003). 그러나 아직까지 긍정적 양육의 전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비밀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독립성조장이거나 수용적 태도에 대한 세대 간 전이에 관련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버지가 자랄 때 경험한 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아버지가 처한 현재 상황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아버지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에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References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 CA : Sage publications.
- Bailey, J, A., Hill, K. G., Oosterle, S., & Hawkins,

- D. (2009). Parenting Practices and Problem Behavior Across Three Generations : Monitoring, Harsh Discipline, and Drug Use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214-1226.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lsky, J. (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 A developmental-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3), 413-434
- Belsky, J., Conger, R. & Capaldi, D. (2009).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201-1204.
- Belsky, J. & Isabella, R. A. (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2), 342-349.
- Belsky, J., Jaffee, S., Hsieh, K., & Silva, P. (2001). Child-rearing antecedent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young adulthood : A prospective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7*(6), 801-813.
- Belsky, J., Jaffee, S. R., Sligo, J., & Woodward, L. (2005).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arm-Sensitive-Stimulation Parenting : A Prospective Study of Mothers and Fathers of 3-Year-Olds. *Child Development, 76*(2), 384-396.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orthvale, N. J.:Aronson.
- Capaldi, D. M., Pears, K. C., Patterson, G. R., & Owen, L. (2003). Continuity of Parenting Practices Across Generations in an At-Risk Sample : A Prospective Comparison of Direct and Mediated Associa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2), 127-142.
- Chae, J. Y. (2011). P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5), 75-83.
- Chen, Z., & Kaplan, H. B.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7-31.
- Cho, S. H., & Choi, M. S. (2002). The Contents Analysis of Fathers' Self-Reported Child-Rearing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7*(1),95-114.
- Chun, W. K., & Kang, J. W. (2007). The Comparative Research on Mother's Parenting Attitude Of Young Children Between in the early-1980s and mid-2000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 Education, 25*(2), 61-84.
- Conger, R., Nellpl, T., Kim, K., & Scaramella, L. (2003). Angry and aggressive behavior across three generations :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2), 143-160.
- Crossfield, A. G., Alloy, L. B., Gibb, B. E., & Abramson, L. Y. (2002). The development of depressogenic cognitive styles : The role of negative children life events and parental inferential feedback.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6*(4), 487-502.
- Desjardins, J., Zelenski, J. M., & Coplan, R. J. (2008). An investigation of maternal personality, parenting styles, and subjective well-being.

-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3), 587-597.
- Egeland, B., Jacobvitz, D., & Papatola, K. (1987).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of abuse. In R. J. Gelles & J. B. Lancaster (Eds.), *Child abuse and neglect : Biosocial dimensions* (pp. 255 - 276). New York : Aldine.
- Epstein, S. (1983). *Scor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sychology, Amherst.
- Goodman, W. B., Crouter, A. C., Lanza, S. T., Cox, M. J., & Feagans, L. V. (2011). Paternal work stress and latent profiles of father-infant parenting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3), 588-604.
- Greene, S. M. (1994). Growing Up Irish : Development in Context. *The Irish Journal of Psychology*, 15(2-3), 354-371.
- Ha, S. H. (2008).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2), 129-141.
- Hardt, J., & Rutter, M. (2004). Validity of adult retrospective repor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2), 260-273.
- Hoeve, M., Dubas, J. S., Gerris, J. R. M., van der Laan, P. H., & Smeenk, W. (2011).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 Unique and combined links to adolescent and early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ce*, 34(5), 813-827.
- Jeon, H. J. (1996).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H. J., & Park, S. Y. (1999).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 Relationship to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3), 153-169.
- Kang, R. H. (2000). Career vs. Child : Difference in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Korean and Japanese Fa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1(2), 119-133.
- Kim, J. J., & Kim, Y. M. (2011). Effects of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hildhood Experiences on the Fathering Practice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 113-129.
- Lee, S. H., Koh, I. S., & Shim, J. S. (2009). The Study of Prent's and Grand Parents' Parenting Style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111-134.
- Lee, Y. R., & Park, S. Y. (2009). The Effects of Family Climate of Fathers' Family of Origin,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on Father-Son Intimac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4), 177-188.
- Lee, J. M., Song, S. M., & Doh, H. S. (201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Styles between Grandparents and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3), 85-97.
- Lim J. Y., Moon D. K., Kim Y. H. (2009). Effects of Father's Job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 & Participation in Child Care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6(2), 93-118.
- Noh J. H., Song H, 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Parenting Attitudes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Psychotherapy*, 7(2), 75-89.
- Palkovitz, R. (2002). "Involved fathering and child development :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good fathering", in C.S. Tamis-LeMonda & N. Cabrer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Erlbaum, New Jersey.
- Park, S. Y. (2002). Fathering, Sons' Aggression, and the Transmission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5), 35-50.
- Park, S. Y., & Park, S. Y. (2007). Mother's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as Related to Child Soci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4(2), 29-51.
- Park, S. Y., Park, U. I., & Han, S. Y. (2009).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6), 15-28.
- Ryff, C., & Keyes, C.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chacht, P. M., & Cummings, E. M. (2009). Fathering in Family Context and Child Adjustment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6), 790-797.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91-106.
- Smith. C. A., & Farrington, D. P. (2004). Continuities in antisocial behavior and parenting across three genera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2), 230-247.
- Song S. Y., & Park, S. Y. (2008). The Effects of SES,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s Peer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5), 19-33.
- Thornberry, T. P., Freeman-Gallant, A., Lizotte, A. J., Krohn, M. D., & Smith, C. A. (2003). Linked Lives :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2), 171-184.
- Whiteside-Mansell, L., Bradley, R. H., & McKelvey, L. (2008). Parenting and Preschool Child Development : Examination of Three Low-Income U.S Cultural Grou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1), 48-60.
- Yang K. S.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2) 75-84.

2013년 2월 26일 투고, 2013년 5월 27일 수정
2013년 6월 13일 채택